

송영의 <황혼>에 나타난 민족 담론

백승숙*

<차례>

- I. 서론
- II. <황혼>에 나타난 '민족' 개념의 세 층위
- III. 민족담론을 위한 <황혼>의 형상화 전략
 - 1. 인물의 유형화: 친일파, 좌파, 독립운동가
 - 2. 어조의 다각화: 풍자, 계몽, 공감
 - 3. 이항대립과 접합
- IV. 나가는 말

I. 서론

역사는 언제나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됨으로써 미래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각 당대의 권력집단들은 역사를 끊임없이 재조정, 재해석해냄으로써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해왔다. 이처럼 역사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지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의 정체를 만들어내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게 된 해방기의 한국인들은 이 중대한 과업 앞에서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알맞은 역사해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 영남대 강사

그러나 그 해석의 방향성은 힘의 논리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8도선을 경계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해 있었기에 남한에서는 미국 주도의 우파 정권이, 북한에서는 소련 주도의 좌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친미, 우파 중심의 역사 해석이, 북한에서는 친소, 좌파적 해석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이외의 목소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각 지역에서 한국인들은 좌, 우 양자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선택에 따라 그들은 월남 혹은 월북을 감행하거나, 아니면 반대편 진영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방기 남한에서의 치열한 좌우대립 현상은 남한 사회만의 문제였다 기보다는 이와 같이 미소 양국이 주도한 전 세계적인 냉전 구도의 파장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남한에 있던 좌파는 북한에 이미 선포된 인민정부를 지지하였고, 우파는 남한에 우파 정권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원했다.¹⁾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했겠지만, 실제로 통일정부에 대한 소망은 당시의 정국에서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해방되자마자 북한에서는 소군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착실한 공산주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인민정부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좌파에 관용적이었던 해방 초기의 미군정 하 남한에서 어떤 정권이 창출될 것인가, 오직 이것만이 해방기의 남은 관심사였다.

본고는 정치가 거의 문화를 잠식한 상황을 연출했던²⁾ 해방기의 연극

1)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미국, 우익, 좌익의 혼재 속에서 복잡한 정치정세가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국가건설론이 대두하였다. 좌익은 1945년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바 있으며, 1946~47년에는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에 맞서 우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대’, ‘자유국가론’, ‘남한단정론’ 등을 제기하였다(도진순, 『해방직후 김구, 김규식의 국가건설론과 정치적 의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한국사연구회 편, 1995, 359면).

계에서 좌파 연극이 미군정 하 남한에서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희곡 속에서 어떤 담론화 방식을 구사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한 때 ‘절대적 진리’처럼 보이고 생각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단지 그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한다.²⁾ 이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더구나 그 심미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저항감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의 인식 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때, 그 담론은 어떤 권력과 연루되어 있으며 그 권력의 지향점에 따라 정교하게 배열되고 구조화된다. 이와 같

2) 다음의 글이 해방기 문화계의 정치주의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냐.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소수의 봉건적 지주나 자본가로서 구성된 특권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민족문학 같은 것은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민족문학은 인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문학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사회의 초석이 될 근로계급의 이익을 주로 위한 문학인 것을 언명하여 서슴지 않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해줄 수 있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지상명령인 민주주의의 국가를 건설하여, 우리가 남북을 통일한 완전한 독립을 전취하는 날까지는 어떠한 구실 아래에서든 막론하고, 정치에 관한 관심을 일순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영건, 『민족문학의 진수』, 『신천지』, 1947.1).

3)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회관계가 의존하고 있는 역사적 조건들이 유연적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 대신에 이데올로기는 그 조건들이 역사 밖에 있는 [역사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즉 불변적이고 불가피하며 자연적인 것처럼 재현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그 전체가 마치 이미 알려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한다.”(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266 면)

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생산과 전파에 큰 효용성을 지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술 작품과 같은 미학적 구조물일 것이다.

한국 희곡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극이 정치권력의 자기장에 가까이 다가서 있던 시대일수록 작가들이 희곡 작품을 지배 권력을 위한 담론 형성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국민 연극 시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지만 해방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러 희곡작가들 가운데서도 송영은 정치, 조직, 작품, 이들의 연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로서 희곡 작품을 통한 담론화 방식에 그 누구보다도 깊은 주의를 기울였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송영은 식민지 기간 동안에는 ‘카프’라는 조직 속에서 활동했으며 일제 말에는 국민연극에 앞장섰고, 해방 후에는 다시 ‘좌파 예술가’로 전환하여 ‘조선연극건설본부’, ‘조선연극동맹’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좌파 정부 수립을 위해 애쓴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곧 정치적 행위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조직 속에서의 활동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조직의 노선을 작품화하여 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술적 과제였다.

카프 시절에 그는 카프의 노선에 따라 ‘투쟁예술로서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작품 쓰기에 주력했다. 대표적인 작품이 <아편쟁이>, <정의와 칸바스>,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호신술>, <윤씨 일가> 등이다. 해방 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전략적 노선이었던 ‘일제잔재 청산, 봉건잔재 청산, 국수주의의 배격’이라는 주제를 좌파의 입장에서 부각시킬 수 희곡 쓰기를 선택했다. 해방 후 그가 처음으로 쓴 작품이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 격이었던 『예술운동』 1호(1945.12)에 실은 <황혼>이다. <황혼>은 단막극이면서도 해방기 최대의 쟁점을 담고 있고, ‘조선문학가동맹’이라는 당시 남한의 중심적 문화조직과의 연관 하에서 생산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당대 그 어느 작품보다도 문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중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황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

의가 있어 왔다.⁴⁾ 그러나 <황혼>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그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바라보는 분열된 시선 때문에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인다. 좌파 이념에 대한 거부감은 그 희곡적 형상화 측면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좌편향의 정치적 선전극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하고, 좌파이념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작품 내부에 잠재해 있는 분명한 이데올로기의 선전선동적 의도를 간과한 채 희곡적 형상화의 탁월함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본고는 송영의 <황혼>을 분석함에 있어 지금까지 이 작품을 이념적 범주에서 바라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시선에서 비껴 서서 작품 속에 녹아 있는 담론화의 방식을 살핌으로써 좀 더 실제적인 작품 이해에 다가서 보려고 한다.

해방기는 ‘국가 만들기’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당시, ‘국가 만들기’ 전략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담론은 그 무엇보다도 ‘민족’ 담론이었다.⁵⁾ 당시 ‘민족’이라는 용어는 친일파에게든, 독립운동가에

4) 유민영은 송영의 작품 세계 가운데 “<황혼>까지만 하더라도 좌경적이긴 하지만 건국을 향한 무정부상태의 혼란상황을 묘사하려고 애쓸 뿐 선전물로 전략시키지는 않았다”고 평가함으로써 사상적인 면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형상화의 측면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한국현대희곡사』, 기린원 1988, 328면. 서연호는 <황혼>에 대해 “식민지 의식의 비판, 친일파의 매도라는 측면에서 연극적 기량을 충실히 드러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좌익적인 목적극의 하나로서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 진실의 창조라는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친일파의 비판이 공산당 독재를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송영은 친일극 작가에서 다시 공산극의 작가로 변신한 것뿐, 그의 연극철학이나 예술정신에는 근본적인 변화나 발전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서연호, 『송영 희곡론』, 『송영』, 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6, 92면).

5) “‘인민’과 ‘민족’의 관념은 대체로 환상적 및 상상적 공동체의 형성에 유용했던 전정치적(pre-political)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정치는 항상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러한 전정치적 요소들을 받아들여 재주물한다.”(E. J. 홉스봄, 강명세 옮김,

게든, 좌파에게든, 우파에게든, 가장 매력적인 화두였다. ‘민족’이야말로 좌우 모두가 친일의 파오로부터 피하여 안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피난처였다. 또한 국민통합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애국심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즉 민족담론을 어느 편이 선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 누가 국가 지배 권력을 쟁취하는가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었다.⁶⁾

그러므로 이 ‘민족’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담론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담론 투쟁을 벌인 시기가 바로 해방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민족담론의 선점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우파는 물론이거니와 송영이 속한 좌파 진영 또한 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담론화의 전략은 송영의 <황혼>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본고는 <황혼>에 나타난 민족담론의 양상을 파헤침으로써 좌파가 남한에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펼친 담론화 방식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좌파와 우파, 내용과 형식 등의 이분법적 사고의 그물에 걸려 부자유스럽기만 했던 <황혼>의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지평을 보태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민족담론이 작품 내에서 그 형상화 방법과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데로 나아감으로써 작품의 실제적 의미와 그 심층의 예술적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비신서 125, 1994, 238 면

- 6) “어떤 특정한 계기에서 사회적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핵심적인 용어들-가령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민의 권리’, ‘국가’, ‘민중’, ‘인류’ 등이 예전에 가졌던 의미를 효과적으로 떼어 내고(탈접합)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부상을 대변하게 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임영호 편역, 앞의 책, 270면).
- 7) “원래 헤게모니라는 말은 권력집단이 현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강압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형식(신화, 이미지 등 본질적으로 기호론적 체제)을 가지고 피지배자들의 의식을 조작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논리를 자연화 또는 상식화시킴으로써 권력집단의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리킨다.”(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239 면)

II. <황혼>에 나타난 ‘민족’ 개념의 세 층위

송영의 <황혼>에는 ‘조선 사람’, ‘조선 동포’, ‘인민’ 등 ‘민족’의 함의를 띤 단어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의미의 층위는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황혼>에서 ‘민족’의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1)

姜 : 아니올시다. 眞談이올시다. 表情이올시다. 漸漸 흥분된다. 영감 저는 하마터면 自殺까지 할 뻔했든 저올시다. 보담도 朝鮮同胞라는 全體를 無視하고 偏狹한 感情으로만 날뛰는 無知한 民衆들한테 마저죽을뻔까지 했든 저올시다. 그러한 저를 救해주시고 또 이렇케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 建國을 위해서 싸와나가는 길까지 터주셨으니…….

(2)

姜 : 그렇습니다. 내가 道會議員이 된 것도 事實인즉 우리 朝鮮百姓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福利를 增進시켜 주겠다는 마음에서 한 노릇이올시다. 그런데 나를 親日派라고...아니 그러타면 總督政治 밑에서 살든 조선사람들은 모두 親日派가 아닙니까?

(3)

李 : 우리 엇딴케든지 좋은 나라를 맨듭시다. 朝鮮民族全體의 나라를 맨듭시다.

(4)

李 : 그거야 問題 있오? 民衆이란, 卽 百姓이란 흘러가는 물결 맛찬가지요. 우리들 指導者가 어디로든지 ‘물고’를 터놓는 대로 그냥 쏘다져 흘러

네려가는 게 民衆이란 거요 이런 意味에서 보면 우리 黨은 第一 社會에서 盡力이 없는 사람, 物望이 높은 사람이 많이 모혀 있지 않소. 첫재 財力으로 보든지 또는 學力을 보든지, 經歷으로 보든지, 貫錄으로 보든지...

(5)

李 :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애도 안가는 모양인데 그러나 姜公 그건 누구나 조선사람이면 다 잊질 수 없어서 犯한 허물이고

(6)

李 : (書額을 가르키며) 그러게 오죽 우리들에게는 저게 있을 뿐입니다
姜 : 朝鮮民族 大同團結

(7)

吳 : (불속 나스며) 아니 그럼 우리 朝鮮사람의 힘은 하나도 없단 말씀 임닛가

(8)

具 : 그리고 이 강선생으로 말씀하면 일즉 동경에 건너가서 최고학부를 맞추시고 처음에는 思想雜誌도 編輯하고 게섯지만 亦是 大勢에 따라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일인한테 彈壓만 받고 일을 해서 뚜렷한 成果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日人과 提携해서 朝鮮民族의 幸福을 保護해야 한다 하셔서 都會議員까지 되셔서 道民, 더군다나 朝鮮사람 道民을 爲해서 努力해 오시는...

(9)

李 : 우리들의 생각이자 조선사람의 생각입니다

(10)

金 : 아인게 안이라 요새 우리들 通譯 가운데 到底히 容恕못할 非人間

的 行爲를 敢行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通譯이란 地位를 利用해서 한편을 속이고 한편을 阿諛하고 뭐든지 利로운 일만 있으면 돈만 생기면, 民族이 辱되든지 建國에 妨害가 되던지를 不計하는 좀 같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11)

金 : 이런 點에서 나는 스스로 自進해서 通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通譯을 通해서 우리나라 全人民의 總意를 그들에게 알이고 한거름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害가 되는 말은 通譯은커녕 抹殺해 버리고 決心했습니다.

(12)

金 : 甚한 것은 당신들요. 三千里 넓은 별관 坊坊曲曲에까지 建國의 巨步가, 鬪爭이 널너 있는 至今 이 現實을 보시오 猛省들을 하시오 머리를 각고 중이 되어 山中庵子에 들어 앉어 參회의 눈물을 흘려도 용서를 받을 지 말지 한 당신들이 왜 이렇게 나스는 거요 당신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당신들을 향해서 肉迫을 하여 오는 人民의 아우성 소리가 들니고 남을 거요.(분연 退場)

(13)

이 : 지금 우리 조선 안 모든 同胞들은 그 先生님들이 돌아오시기만 鶴首苦待들을 하고 있습니다.

(14)

沃川 : 뒷기 실습니다. 생각 있는 사나힐 것 같으면 하다못해 엇질 수 없이 그놈들의 압박을 맞고는 지넨망정 한거름 더 나가 그놈들의 비위를 맞추고 손발이 되고 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太極旗를 가르키며) 日本旗 걸어 왔든 자리에 太極旗만 밧구어 끼여 왔다고 새 조선사람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말끝마다 가을 서리가 돈다)

(15)

沃川 : (冷笑를 하며 나를 나 같은 촌 늙은 老婆를 이럿케 대리고 온 그대들의 마음 속은 거울 속보담도 더- 잘 되려다보입니다 내가 그이의 안해인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이가 나한테 약속한 독립이란 선물은 당신들같이 왜놈들한테 부터서 동포의 피땀을 같이 글겨서먹다가 다시 旗때를 박어들고 뻘뻘스럽게 나스는 무리들한테는 차례가 아니 갈 것입니다.

(16)

李 : 조와 나도 조선사람야 (다 크게) 독립된 조선사람야

(17)

진주의 소리(마이크) :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 조선사람이실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고만두시고 피 셋긴 참회에 눈물을 흘려 주십시오. 자-들어 보십시오. 建國을 爲해서 부르짖는 젊은이들의 노래소리를(합창소리 커간다) 아버지 아버님의 不純한 過去의 하로 동안 낫도 이제는 더 저물어지고 말았습니다.(強烈한 黃昏의 斜陽)

<황혼>이 단막극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함의를 지닌 단어가 이렇듯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민족’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층적으로는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경우, 그 개념이 서로 아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황혼>에 나타나는 ‘민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⁸⁾ 민족개념 1은 (1), (2), (3), (4), (5), (6), (8), (9), (13), (16)에서 나타난다. ‘조선동포라는 전체’, ‘조선민족 전체’, ‘조선민족 대동단결’ 등의 표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야말로 혈연, 영토, 언어를 공유한 전체로

8) 이를 편의상, 민족개념 1, 민족개념 2, 민족개념 3으로 부르기로 한다

서의 집단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구성원 내에서의 어떤 가치평가적 구별도 배제하고 있으며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2), (4), (7)의 경우에는 민족 전체가 동시에 시혜의 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즉, <황혼>에 나타난 민족개념 1은 ‘가치 개념이 배제된 전체이면서 동시에 확고한 주체로서의 능력이 결여된 미성숙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민족개념 2는 (10), (11), (12)에서 보여진다. 여기에서는 ‘민족’이 뚜렷한 이념적 가치관에 의해 구별된 의식적 집단을 지칭한다.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인간적 행위를 감행하는 무리들’, ‘좁같은 무리’나 (12)에서처럼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민족반역자는 ‘민족’의 이름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이들을 향하여 저항의 아우성 소리로 욱박하여가는 ‘인민’이야말로 ‘민족’의 개념에 걸맞는 존재이며 (11)의 ‘전 인민’처럼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의식을 지닌 긍정적 존재로서 구별된 구성원들만이 참다운 ‘민족’의 이름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혼>에 나타난 ‘민족’의 두 번째 개념은 ‘구성원들의 복리에 도움이 되고, 이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지닌 의식화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 민족개념 2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인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민족개념 1과 3의 경우, 용어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두 번째 개념의 사용에서는 ‘인민’이라는 특수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의 변별력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개념은 해방기 좌파가 내세운 ‘인민’의 개념과 일치한다.⁹⁾

9) 임화는 해방 직후 그의 글 『문학의 인민적 기초』에서 ‘인민’이라는 개념을 ‘국민’, ‘민족’, ‘민중’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근자에 흔히 쓰는 인민이란 개념의 내용을 잠(暫) 밝힐 필요가 있다. 인민과 극히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 민족, 민중이란 말이 있다. 국민이란 간단히 말하여 일정한 국가에 속한 민중의 총칭(總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민족이란 개념도 역시 국민과 비슷하여 비록 독립한 국가에 법적으로 속해 있지 않고 과거의 조선민족과 같이 타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라도 인종적 또는

민족개념 3은 (7), (14), (15), (17)에 나타나 있다. ‘새 조선사람’, ‘정말 조선사람’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단순한 군집으로서의 전체가 아니며 두 번째 개념과는 다른 층위에서 ‘구별된 집단’을 의미하고 있다. (14)에서처럼 ‘엇질 수 없이 그놈들의 압박을 받고는 지낼망장’ 자발적으로 ‘그놈들의 비위를 맞추고 손발이 되고 개가 되지’는 앓을 사람들, 친일파로부터 착취를 당한 사람들(15), 비록 과거에 친일을 했더라도 해방 후 ‘모든 것을 고만두고 피 섰긴 참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곧 세 번째 개념에 속하는 ‘민족’의 구성원들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들은 ‘오랜 역사적, 문화적, 공동 운명체적 생활을 통하여 이해관계나

언어적 기타 약간의 주로 자연사적인 공통성을 가진 일정한 인간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비하면 민중이란 이 위의 두 가지 말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한 국민 한 민족 가운데서도 민중이란 대중이란 말과 같이 주로 피치자(被治者)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피치자도 피압박의 인민층만을 민중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렇다고만 대답키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다. 불란서 혁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곧 민중이란 말이 가장 가까운 실체를 포착할 수 있다. 민중이란 결국 만민평등설과 더불어 19세기적인 개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노동자나 농민 기타 중간층이나 지식계급 등등을 포섭하는 의미에 있어 이 말 가운데에는 피착취의 사회계급을 토대로 한다는 일종 농후한 사회계급적인 요소가 보다 더 많은 개념이다. 현대가 민중이란 말 대신에 인민이란 말을 쓰는 것은 아마 현대에 있어 사회적 모순 해결에 국가적 민족적인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기본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때문인 것 같다.”(『중앙신문』, 1945년 12월 8~14일) 임화는 구카프 해소파이자 해방 직후 「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속했던 인물이고, 송영은 구카프 비해소파이자 「프로예맹」에 속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변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양인이 모두 좌파에 속해 있고, ‘인민’의 개념에 있어서는 송영의 임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인용하였다. 임화는 이후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도 “식민지 민족의 해방투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민족의 구성요소는 결국 노동자, 농민, 소시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전(前)세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민족 내부의 모든 특권층을 제외한 인민들의 인민전선적 집합체’이며 ‘현대에 있어서도 민족은 인민이요, 인민의 이념만이 민족의 이념이 될 수 있는 것’(임화,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3호, 1947년 4월)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리에 있어 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특수한 애정과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송영은 <황혼>에서 이와 같이 세 층위의 '민족' 개념을 구사하고 있다. 그가 이 가운데 어떤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개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그 희곡적 형상화 방법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언급하기로 하겠다.

III. 민족담론을 위한 <황혼>의 형상화 전략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송영은 <황혼>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의 다른 의미 층위로 사용함으로써 '민족'의 개념 정의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한 이 세 가지 의미 층위를 희곡 내에서 인물 유형 어조 등과 맞물리게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 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인물의 유형화-친일파, 좌파, 독립운동가

앞에서 정리한 <황혼>에 나타난 '민족' 개념의 세 층위는 작품 내에서 세 인물의 유형과 맞물려 있다. 먼저 민족개념 1은 이, 강병호, 구일순 등 친일파 인물 유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이'는 부호이며 모회사 사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는 자신을 민중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민중이란, 즉 백성이란 흘러가는 물결 맛찬가지로 우리들 지도자가 어디로든지 '물고'를 터놓는 대로 그냥 쏘다져 흘러 내려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의 친일은 '누구나 조선사람이면 다 엇질 수 없어서 범한 허물'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조선은 아직 우리 손으로 경영할 만한 실력이 없’으므로 신탁통치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골 도회의원인 강병호는 친일파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조선동포라는 전체를 무시하고 편협한 감정으로만 날뛰는 무지한 민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친일을 한 것은 ‘조선백성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리를 증진시켜 주겠다는 마음에서 한 노릇’이라고 변명한다. 아버지 강참봉을 통해 그가 시골 대지주의 아들이며 토지개혁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사인 구일순은 친일파 비판 세력에 대해 그들은 ‘서로 찢어발기고 비방을 하고 남을 짓누르고 저희들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이며 ‘원수도 사랑허라시는 하누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친일파들도 실은 ‘일인한테 탄압만 받고 일을 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인과 제휴해서 조선민족의 행복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친일을 한 것이라고 대변해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역시 조선민족의 ‘단결’을 강조한다.

<황혼> 안에서 이들은 한결같이 친일파의 분신들로서 친일파 변호의 논리를 펴는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송영이 이들의 입을 통하여 비판하고자 한 것은 당시 신탁통치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던 한민당을 비롯한 우파 계열의 주장이다.

민족개념 2는 주로 통역생 김영철에 의해 피력되었다. 그는 ‘정말 진실로 조선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조선은 아직 독립될 실력이 없다는 게 같은 소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신탁통치 찬성이 ‘사대주의 노예근성’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친일파에 대해서도 ‘어제까지 왜놈들의 주구질을 하다가 이제 외서는 또다시 새로운 주구들이 되어 있’는 자들로 인식하고 있다. 김영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작품 속에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는 당시 남로당의 정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김영철은 좌파 지식인 인물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개념 3은 오서방, 진주, 옥천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오서방은 부호 이사장 집의 하인으로서 해방의 ‘제일 큰 은인이, 연합국’이며, ‘더욱히 원자폭탄이란 평화의 무기를 발명한 미국의 힘’이라는 강병호의 말에 발끈하며 ‘조선 사람의 힘’이야말로 해방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그는 무식하지만 순박하고 정의로운 심성을 지녔고 누구보다도 해방의 감격에 겨워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오서방은 순수한 민중의 인물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진주는 고등학교 음악교원으로 있는 지적인 처녀로 나온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교육에 종사했던 것을 참회하는 교원 총사직에 동참하고 있으며 친일과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아버지께서 정말 조선 사람이실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고만두시고 피 섞인 감회의 눈물을 흘려 줄’ 것을 당부한다. 진주는 지식인 인물 유형에 속한다.

옥천은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의 아내이다. 그녀는 ‘온순 단아한 성격에 불요불굴의 기개’를 지닌 인물로 소개되어 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남편으로 인해 함께 고초를 겪으면서 친일파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으며 그들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옥천은 독립운동을 한 항일 지식인의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족개념 3은 민중, 지식인, 항일 지식인의 인물 유형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는 이념을 넘어선 항일의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인물들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이, 송영은 <황혼>에서 ‘민족’의 각 개념마다 상응하는 인물 유형을 배치함으로써 각각의 ‘민족’ 개념이 어떤 인물들에 의해 주장되고, 표현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즉 민족 개념 1은 친일파에 의해서, 민족개념 2는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서, 민족개념 3은 항일 민중들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2. 어조의 다각화-풍자, 계몽, 공감

송영은 <황혼>에서 민족의 각 개념과 인물의 유형, 어조를 각각 조응 시킴으로써 민족담론의 효과적 형성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물의 유형과 그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어조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민족담론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족개념¹⁾을 형성하는 인물들의 대사는 주로 풍자적인 어조를 띠고 있다. ‘이’, ‘강병호’, ‘구일순’의 모든 대사들은 그들이 그 말을 내뱉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의 모순을 폭로함으로써 풍자되고 있다.

앞의 예문 (1), ‘장’의 대사에 나오는 ‘무시하고’, ‘편협한’, ‘날뛰는’, ‘무지한’ 등의 조금 강한 어감을 지닌 단어들은 하나같이 조롱하는 듯한, 과장된 듯한 어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당시 친일파들의 목소리 즉 타자의 목소리를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재현할 때 발생하는 미묘한 어조의 변화가 주는 효과이다. 이 대사들은 형식적으로 볼 때 상당히 사실적인 내용에 해당하지만 이 발화내용이 존재하는 장인 작가, 관객, 등장인물들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풍자적 울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경우, 그 맥락의 짜임이 정교함으로 인해서 그 울림의 효과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10) 아래 글은 바흐친의 담론유형학(discourse typology)에 대한 연구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대목이다.

“상대편 대화자가 말한 내용을 우리 자신의 발화로 재현할 경우 단지 발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가피하게 어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타자’의 말을 우리 자신의 입에 담을 경우 항상 낮선 것처럼 들리며 아주 흔히 조롱하는 듯한 그리고 과장된 듯한 어조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결과적인 응답에 있어서 상대방이 질문한 문장의 동사에 대한 우스꽝스럽고 매우 풍자적인 반복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가끔 상대편 발화의 일부를 반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리고 그것을 풍자적으로 비꼬기 위한 목적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구조에 의존하거나 매우 대담한 그리고 때때로 전혀 불

<황혼>에 나오는 ‘강’, ‘이’, ‘구’의 대사들은 당시 우파나 친일파의 언술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극 속에 들여놓았다는 점에서 우선 생생한 현실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현실감을 역이용하여 이들이 ‘옥찬’을 비롯한 다른 등장인물들과 철저한 대립관계 속에 놓여지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살아 있는 말들이 오히려, 가장 하찮은 변명, 혹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전락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극의 신랄하면서도 포복절도할 풍자가 발생하는 지점인 것이다.

작가는 ‘강’을 통해서 일제 때 관료로서 일본의 조선 착취를 도왔던 친일파들의 변명을 비웃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는 당시 한민당 지도부의 민중관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구’를 통해서 ‘대세에 따라서’(예문 8) 권력자와 제휴하여 민중을 저버리는 종교인들의 속성을 풍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조선 동포라는 전체’(예문 1), ‘조선 민족 전체’(예문 3), ‘조선사람이면 다’(예문 5), ‘조선민족 대동단결’(예문 6) 등의 의미아말로 이 작품 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비꼬기 위해 제시된 것들이다.¹¹⁾ 송영은 ‘조선민족 대동단결’을 내세운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의 모순을 희화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이러한 반복을 사용한 것이다.

풍자적 어조에 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관점들은, 민중 중심의 사고를 자처하는 좌파의 이데올로기적 시야 안에서 생성되었고, 또 그 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이다.¹²⁾

가능한 구조에 의존하게 된다.”(V. N. 볼로쉬노프, 송기한 옮김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 사상, 2005, 299 ~ 300면)

11) 각주 9) 참조

12) “문학과 개별적인 작품의 생성은 이데올로기적인 시야의 총체적인 틀 내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작품을 분리시키게 되면 작품 자체는 더욱 더 확실하게 무기력해지며 생명력이 없어지게 된다.”(V. N. 볼로쉬노프, 앞의 책, 328면)

결과적으로, 송영은 <황혼>을 통해 친일파를 비롯한 우파의 ‘민족’ 개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이 극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¹³⁾

‘풍자’는 송영이 1930년대부터 이미 충분히 활용한 바 있는 그의 극작술에 해당한다.¹⁴⁾ 이후 그는 흥행극과 국민연극의 시기를 보내었고, 해방기에 이르러서 <황혼>을 통해 다시 한 번 풍자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셈이다. 카프 시기에 풍자를 선택한 이유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일제가 물러난 해방기에 이르러 그가 다시 풍자를 형상화 기

13) 당시 좌파에서는 인민만이 민족이요 인민이 아닌 사람은 민족이 아님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민족은 폐왕(廢王)도 아니요, 자본가도 아니요, 지주도 아니요 어느 외국관서(外國官署)의 속리도 아니요, 바로 인민 그 자신이란 이념이다... 그러면 폐왕이나 자본가나 지주나 외국관서의 속리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은 민족의 이념이 아닌가? 그것은 민족의 이념이 아니다 어찌하여서 그런 것이 민족의 이념이 될 수 없는가 하면 그런 것은 인민의 이념이 아니라 소수 특수자들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특수인 소수자들은 우리와 같은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 민족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용모를 쓰고 우리와 다름없는 언어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인민이 아닌 때문에 민족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어찌서 인민만이 민족이요, 인민 아닌 사람은 민족이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는 삼천만이란 조선인구 가운데 조선인의 탈을 쓴 조선 민족의 적이 섞여 있다는 주지의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같은 종족으로서 민족의 범주로부터 제외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임화, 앞의 논문)

14) 김재석은 송영의 식민지 시기 희곡세계를 3기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1931년부터 카프가 해산된 1935년 5월까지를 중기로 지칭하여 송영이 풍자적 기법을 사용한 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의 희곡은 풍자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기의 희곡은 카프진영의 중앙극단인 ‘신건설’과 밀접한 관계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작품에 풍자적 기법을 활용한 희곡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관객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연방식이 희곡이기도 하지만 카프 진영의 극단이 일제의 검열을 인정하고 공연하기로 결정한 이상 우회적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재석, 『송영의 희곡세계와 그 변모과정』, 『송영』, 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6, 53~80면).

법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풍자라는 방식에 익숙해진 탓도 있겠지만 송영이 풍자하고자 한 대상, 즉 친일 전력을 가졌으면서 해방 후 재기하려는 정치적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그 인물군에서 송영 자신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정면 비판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풍자적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민족개념 2에 해당하는 인물인 ‘김영철’은 이 작품에서 계몽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해방기에 있어서도 ‘계몽’은 좌파 예술운동의 주요한 과제였다.¹⁵⁾ 좌파 희곡에서 흔히 등장하는 계몽적 지도자형 인물이 이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 인물유형들이 충분히 풍자되어 왜소해진 상황에서 김영철이 강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극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의 발언은 연발탄처럼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이미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진 삼인(三人)을 거의 초토화시키기에 이른다. 거의 일방적 연설에 가까운 긴 대사들이 이어진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말을 남긴다.

金 : 甚한 것은 당신들요. 三千里 넓은 별관 坊坊曲曲에까지 建國의 巨步가 鬪爭이 널려 있는 至今 이 現實을 보시오 猛省들을 하시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山中庵子에 들어앉아 참회의 눈물을 흘려도 용서를 바들지 말지한 당신들이 왜 이렇게 나 스는 거요.
당신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당신들을 向해서 肉迫을 하여 오는 人民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남을거요(분연 退場)

이 장면에서 ‘민족’의 두 번째 개념에 해당되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15) “우리는 예술인이거나 과학인이거나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계몽’이다. 우리 수천만 동포 속에서 그 대부분이 문맹이다 간신히 문자를 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 희소하다. 우리는 하나를 말하면 곧 하나를 계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김태준,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주의 12강』, 1946.10).

등장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이 부분에서 단 한 번 사용되지만 극의 흐름상 가장 힘 있게 강조되고 있으며 농축된 주제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송영은 이 작품을 통해 민족개념²를 대중들에게 계몽하기 위해 이 극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민족개념³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즉 이념과는 관계없이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알맞게 배치된 인물들로서 공감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오서방’은 무식한 하인으로 등장하지만 실은 주인인 ‘이’와 ‘강’, ‘구’의 허위성을 노출시키기 위해 적합하도록 우직하고 진실한 심성을 가진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고 그의 대사는 풍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뒨 : 오늘밤에도 또 나라 나라꿈이는 숭가 있습니다그러

李 : 듯기싫어

뒨 : 네 황송합니다. (우스며) 그러나 저도 하도 신통해서 그런답니다 옛
그적계까지 왜놈들을 請해다놓고 會社잘떨의론들을하시든 영감들께
서 언젠는 이렇게들 우리나라獨立꿈이시는 會들을 每日밤하시게들
되신 것을 생각하오면 (감격에 빠진다)

위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서방’은 일반 대중들이 친일 경력을 지닌 자들에 대한 생각을 선명하게 대변해 주면서 ‘이’를 우스운 인물로 만드는 한편, 궁지에 모는 역할을 한다. 관객들은 ‘오서방’의 이러한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지식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진주’의 대사들 또한 ‘오서방’과 더불어 ‘이’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진주는 아직 기성세대의 탐욕에 때 묻지 않은 젊고 순진한 처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예문 (17)에서처럼 의미심장한 결말을 이루

는 대사를 그녀에게 맡김으로써 작가는 진주의 목소리가 곧 수많은 순수한 대중의 목소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한 것이다. 즉 공감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옥찬’이야말로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든 거부할 수 없는 ‘진실’과 ‘정의’를 한 몸에 구현하고 있는 인물로서 해방 직후 대중들의 가장 강력한 옹호와 성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가’형 인물이다. 그녀의 대사들은 강직한 인품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沃川 : 그때 己未年萬歲통에 잡혀갔다가 감옥사리 三年만에 다시 나왔을 때 그리고 한달이나지난 어느날밤 그때는 눈오는 겨울밤이었소. 얼골이 하얗게된 그이가 조고마한 손가방하나 그리고단장하나만 잡고 쓰러져가는 울타리옆에 나와 마조섯섯소.
「나는가요」 “몸 조심하시오” 「용서해주」 “집안일은 내가맡으리다” 그리고는 나나 그이는 서로 쳐다만보고 섰섯소. 조금뒤에 그이는 “내가 꼭오고마리다 獨立이란 선물을 들고오리다” 「선물이 안되거든 올생각을 마시오」 “안오리다” “잘가요” “여보 잘잇소” 남편은 목민소리로 외치면서 잡앗든 나의 손목을던지듯이 놔버리고 다름쳐서 갓소 조금가드니만 뒤를 다시도라다보드니만 그만 空中을쳐다보고 악을썩되다. “조선아 잘잇거라”

위에서처럼 낭만적인 서정성까지 느껴지는 ‘옥찬’의 대사들은 그녀의 인물형상을 입체적으로 나타내줄 뿐 아니라 해방의 감격에 젖어있는 당시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관객들은 ‘옥찬’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들의 부정한 과거에 대한 죄의식을 털어버리고 밝고 공명정대한 진실의 편에 잠시라도 서 보는 정화의 체험을 가질 수 있기에 작가는 누구나 ‘옥찬’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

록 만들면서도 진솔한 대사로서 공감적 어조를 살렸다.

관객들은 이 극을 통해 첫 번째 인물들에게는 조롱과 연민을 보내고, 두 번째 인물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며, 세 번째 인물들과는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송영이 <황혼>에서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풍자와 계몽, 공감대 형성이라는 어조의 다각화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이항대립과 접합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송영은 <황혼>에서 세 층위의 민족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유형화하는 한편 어조를 다각화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해방기 민족 담론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가 극 속에서 이러한 민족 개념과 등장인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고 있는가이다.¹⁶⁾ 그는 <황혼>에서 민족개념 1(친일)/민족개념 2(좌파), 민족개념 3(항일)의 이항대립¹⁷⁾ 구도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송영이 위와 같은 배열을 통해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16)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의미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신화의 특정한 내용이라기보다 ‘배열의 논리’이다.”(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앞의 책, 262면)

17) “이항대립주의는 자연에 주어진 조직원리라기보다는 인간의 인식작용이 빚어낸 문화질서라고 봄이 옳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항대립주의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기능은 범주화이다. 흑백논리가 여기서 비롯된다. 이에 의해 사람들은 <친구/적>, <우익/좌익>, <선한 사람/악한 사람>, <지배자/피지배자> 등으로 기초적인 분류를 한다. 이런 범주화는 매우 의고적이고, 그 중간에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난폭한 강직성이 있기 때문에 18세기 프랑스의 사회학자 본(Gustave Le Bon, 1960)은 이항대립주의를 야만적이라고 보았다.

둘째, 이항대립주의는 의미 생산의 기초가 된다... 셋째 기능은 구조적인 것이다.”(김경용, 앞의 책, 180~181면)

18) “범주들은 범주화 주체의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는 좌파를 친일과 대립되는 방향에 배치하는 한편, 항일과 동일한 선상에 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개념 2에 해당하는 좌파의 '인민' 개념에 커다란 방점을 찍어 놓은 것이다. 이로 볼 때 그는 처음부터 민족개념 2를 참다운 민족의 개념으로 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세 층위의 민족 개념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등장인물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황혼>의 인물들은 우파=친일파/좌파=독립운동가=지식인 민중으로 짜여진 이항대립의 구도 속에 놓여져 있다. 이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즉 '친일파는 나쁘고 독립운동가는 좋다'는 상식을 희곡의 서술 체제 속에 끌어 들이면서 독립운동을 좌파의 편에 배열함으로써 좌파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재생산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¹⁹⁾

또한, 이러한 대립관계 설정은 좌파의 친일경력을 은폐하고 당시 대중의 신망을 얻고 있던 독립운동가와의 접합²⁰⁾을 통해 좌파가 도덕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이다.

에는 무시할 수 없는 자의성이 개재되기 마련인 것이다.”(김경용, 앞의 책, 64면)

19)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그 서술 체제 내에 끌어들이면서,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사회의 상식적인 지식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또 그것들을 선택적으로 재생산했다.”(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앞의 책, 267면)

20) “접합(articulation)이란 어떤 조건 아래 두 개의 다른 요소를 서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연결 형태이다. 그것은 항상 필연적이거나, 결정된, 절대적인, 필수적인 것이 아닌 연결이다. 과연 어떤 조건 아래 두 개의 다른 요소를 서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반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담론의 ‘통일성(unity)’이란 사실 다양하고 서로 구분되는 요소들을 접합시킨 것인데, 이들은 아무런 필연적인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접합 될 수 있다. 중요성을 띠는 ‘통일성’은, 어떤 담론과 이것이 어떤 역사적 조건 아래 연결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는 사회적 요인들이 접합함으로써 생겨난 연결이다. 따라서 접합 이론이란, 어떻게 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어떤 담론 내에서 서로 일관성을 띠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또한 그것은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주체들에 접합되거나 혹은 되지 않거나 하는지를 반문해 보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위의 책 119 ~ 120면)

이는 우파가 친일/항일의 문제를 좌파/민족의 문제로 교묘히 대치시켜 나감으로써 친일 대 항일의 위치를 역전시켜 버린 전략과 동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방기에는 좌파와 우파가 다같이 친일의 과거를 지우고 항일의 주체로서 ‘민족’의 이름을 얻기 위해 치열한 담론 투쟁을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송영은 이와 같이 <황혼>에서 적절한 이항대립과 접합의 사용을 통해 좌파야말로 명실공히 ‘민족’이라는 이름의 적자임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당시 지배 관념으로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우파의 ‘민족’ 개념을 탈접합시킨 자리에 자신이 의도하는 좌파의 ‘민족’ 개념을 효과적으로 접합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상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해방기 당시, 좌파는 조직적으로 민족담론 형성에 최대의 힘을 경주한 바 있다. <황혼>은 그 중에서도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좌파의 민족 담론의 기초석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해방기의 다른 좌파 작가의 작품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신고송의 <서울 갔던 아버지>의 경우, ‘자본가=일본제국주의-미국헌병/노동자, 농민=소련 인민공화국 정부’ 라는 대립 구도를 통해 ‘인민정부 절대 지지’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내고 있다.

이기영의 <닭싸움>에서는 ‘노동자(문상식)=민족적 일대분발삼 닭싸움 하는 동네 사람=사리사욕에 빠진 사람’ 이라는 구도를 통해 노동자 민족의 등식을 만들면서 ‘붉은 군대 만세’를 외치고 있다.

함세덕의 <고목>의 경우, 친일파=한민당/공산당 이라는 도식을 통해 ‘친일’의 과오를 우파에게만 돌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노아의 <선구자>에서도 사회주의운동가=독립운동가=민족주의자 친일파=반민족주의자 라는 대립관계를 통해 좌파=민족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해방기의 좌파 희곡은 공산당=민족, 한민당=친일파, 반민

족이라는 도식을 활용하여 ‘친일잔재, 봉건잔재 청산’이라는 표면적인 목표 아래 ‘인민 정부 지지’라는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만들기’의 전략적 슬로건 아래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좌파의 민족담론은 이후 북한 사회에서 친일파(=이승만=우파=남한 정권/독립운동가 김일성)=좌파=북한 정권이라는 도식으로 전개되어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 도식은 북한정권이야말로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민족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를 식민지적 상황(친일=친미)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명목의 규율 논리로 발전하였고 한국전쟁 도발의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IV. 나가는 말

<황혼>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개념이 해방기에 이르러 더욱 세분되고 정교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민족’의 개념은 애국계몽기 때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식민지 경험과 해방이라는 사건,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개념이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된 듯하다.

어쨌든, 해방기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놓고 좌파와 우파가 격렬한 담론 쟁취 투쟁을 벌였던 시기이다. 이후 우파의 민족담론은 남한에서 좌파의 민족담론은 북한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서 작동한 바 있다.

먼저 우파의 민족담론은 남한 사회의 기본 담론을 형성해오다가 70년 이후 수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시도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좌편향의 오류에 빠지기도 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이러한 수정과 전환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좌파의 민족담론

은 북한에서 해방기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새로운 담론 생성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북한의 주류 담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간 송영의 <황혼>이 단순한 정치선전극이나, 해방기 최고의 리얼리즘 수작이나를 평가하기 위해 고민해왔으나 이렇게 되면 희곡 연구가 이데올로기적 문제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기 쉽다. 작품은 그것이 이념적으로 어찌됐든, 명백히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존재한다. 지금도 담론은 여전히 형성되고 있으며 힘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담론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희곡 연구가 이러한 담론의 구성방식을 파악하여 그 흐름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재출발한다면 보다 폭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기회에는 우과 희곡에 나타난 민족담론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해방기의 ‘민족’ 개념이 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른 철저히 구성적이고 정치수사적인 개념임을 총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주제어 : 해방기, 민족담론, 이데올로기, 이항대립, 접합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재석, 「송영의 희곡세계와 그 변모과정」, 『송영』, 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5, 53~80면.
 도진순, 「해방직후 김구, 김규식의 국가건설론과 정치적 의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한국사연구회 편, 1995, 359~386면.
 서연호, 「송영 희곡론」, 『송영』, 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5, 81-95면.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기린원, 1988.

-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E. J. 홉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비신서 125, 1994.
V. N. 볼로쉬노프, 송기한 옮김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 사상, 2005.

K C I

Abstract

'Nation' Discourse Expressed in *Twilight*
written by Song Young

Baik, Seung-suk

This thesis intends to find the 'nation' discourse expressed in *Twilight* written by Song Young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e most popular and influential word at that time was above all, 'nation'. Therefor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both the leftists and the rightists had a severe discourse fighting to persuade the people that they were more worthy than the other of the term, 'nation'. In this kind of discourse struggle, literature or art may be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 The *Twilight* by Song Young was the work that revealed the 'nation' discourse of the leftists most profoundly.

Song Young made three layers of the concept, 'nation'. First is the indiscriminate union, second is the 'people' in the leftists' meaning, third, the union of the conscious people. He used these three to present the concept which he considered to be the real one. For this, he had a special strategy in representation. First, he made typical characters that corresponded to each concept. They are the pro-Japanese, the leftist, and the activist for independence. Second, he used the various tones of voices for characters. He provided the sarcastic tone for the pro-Japanese, an enlightening tone, for the leftist, and for the activist, tone of sympathy. Through all these, the writer wanted to suggest the second concept to be the real one. And he made a binary between the first concept and the second, and a third one to get a special ideological effect. Through the articulation of the leftist and the activist for independence, he tried to easily hide the pro-Japanese career of the leftists and to take the moral justification. And he wanted to construct the nation

centered round leftists.

Key words : liberation period, 'nation' discourse, ideology, binary, articulation

접 수 일 : 2006년 8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9월 1일~ 30일
게재결정 : 2006년 9월 28일

K C I